

프랑스 시민 : “진선인(真·善·忍)은 인류의 권리입니다”

[명후이왕] 2021년 5월 23일과 30일 주말 오후에, 파리 14구의 생 피에르 드 몽루주 성당 앞과 파리 1구의 콜레트 광장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은 파룬궁 연공 동작을 시연하고 소개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봄여름 즈음하여 프랑스는 점차 봉쇄 해제 제 2 단계에 진입해, 거리에는 행인이 매우 많았는데, 많은 시민이 파룬궁 반(反) 박해 지지를 위해 엄숙하게 서명 용지에 서명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시민들, 생 피에르 드 몽루주 성당 앞에서 반박해 지지**

투자 관리자 이메네 레차브(Imene Lechhab)는 5월 23일, 3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생 피에르 드 몽루주 성당을 지나갈 때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진상을 들었다. 그녀는 매우 놀라워하며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일(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의 생체장기적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수련인은 단지 명상할 뿐이고 인류에게 유익한 일인데,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다니, 나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이런 반인류 범죄와 박해가 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선인(真·善·忍)은 우리 세계를 좋게 변화시킵니다. 사람마다 진선인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이 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나 이 세계 누구에게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진선인은 권리입니다. 이런 가치를 소유하는 것은 인류의 권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조슬린은 서명 용지에 서명한 후 분노하며 말했다. “중공은 나치스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무엇이든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사람들이 반박해 지지 서명을 하고있다.

있습니다. 나는 중공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건강 뉴스 기자 마고(Margot)는 5월 29일 생 피에르 드 몽루주 성당 앞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 중공의 각종 박해를 받고 심지어 생체장기적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것은 집단 학살 범죄입니다. 나는 앰네스티가 왜 밝히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프랑스의 일부 사람은 중공 박해 공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뭐든 다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구르인의 일을 들어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룬궁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마고는 또 “중공은 자본 공산주의입니다. 즉 일종 자유주의자의 자본주의에 진입해 전 세계 인구를 점점 더 많이 감시 통제하고, 금융 과두의 지위로 자연 자원의 통제권을 강탈합니다. 또 이런 자연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제해, 현재 사람들

은 절대적인 전 세계 감시 통제에 진입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한 퇴직 조종사는 가방에서 30년 전 천안문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꺼내 파룬궁 수련생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견지하길 바란다며 중공의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파룬궁 수련생의 용기를 칭찬했다.

파리 도심에 위치한 콜레트 광장은 프랑스 극장, 로얄 광장, 루브르미술관 등 여행 관광지에 둘러싸여 있다.

퇴직 공무원 캐서린(Catherine)은 5월 30일 오후 콜레트 광장에서 우렁차고 엄숙한 목소리로 “중국이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박해는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박해자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든 불한당처럼 심연에 떨어지는 결말을 볼 겁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생체(2면에 계속)

열점 기편속에서 각성하다

‘7.1’전에 중공이 고압으로 정치온정을 유지했지만 사회문제와 돌발사건은 오히려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끝이질 않는 광난(矿难) 소식에서부터 강소성 학교합병으로 일으킨 항의, 그리고 내몽골에서 스스로 납부한 교육정돈비용 400 억등 관련 스캔들까지, 부정적인 소식은 이미 막을래야 막을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디에 또 “경외 반화세력”을 향해 칼을 내밀 필요가 있는가?

중앙 당교 퇴직교수 차이샤(蔡霞)는 웨이보(微博) 계정에 올린 글에서 말했다. 중공은 자신의 100 주년을 경축하면서도 겁먹은 사람처럼 하찮은 일에도 크게 놀라고 있다. 중공의 손에는 기관총도 있고, 돈도 있으며, 첨단기술탐지기도 있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려면 곧 체포할 수 있고, 계정을 삭제하려면 곧 삭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두려워 한단 말인가? 도대체 100 주년이 경축날인가 아니면 제사날인가?

최근, 중공은 1919년 청년각성의 홍색극 <각성년대>를 고조로 선전하고 묘사했다. 극에서 진독수의 두 아들이 사형장을 가는 장면이 눈물 포인트로 됐다. 그러나 중공은 도리어 진독수 본인이 만년의 각성 - 중공과 소련 스탈린독재 통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서방 민주제도만이 비로서 사회의 출로라고 인정한 것, 또 그의 딸이 문화대혁명에서 박해를 견디지 못해 생사를 버리고 홍콩으로 탈출한 후 결국 미국으로 떠나 한평생 돌아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각성한 자는 진독수 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중공 영수 장국도(张国焘), 구추백(瞿秋白)도 모두 중공의 내부투쟁의 잔인함과 중공의 가짜 항일이 민족 대의를 위배하는 것임을 똑똑히 보아내고서 중공을 포기했다. 때문에 1919년 이 한 세대의 사람들은 각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 기편을 당해 도리어 중국을 깊은 함정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중국사람으로 놓고 말하면 중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공산사령을 멀리하는 것만이 비로서 진정한 정신적 각성이다. 우리는 대기황으로부터, 문화대혁명, ‘6.4’ 등 역차 운동과 재난 중에서 걸어온 중국 사람들은 역사의 비극이 다시 재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1면의 계속)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이 및 세계 사람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대하고, 진정하게 인류를 존중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각종 박해를 중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중공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들의 활동은 매우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화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기에 그들을 감화시켜야 하고,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을 의식하게 만들고, 인민에 대한 중공 정권의 박해를 저지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일하는 슬리만(Slimane)은 파룬궁 수련생과 오랫동안 얘기 나눈 뒤 “박해는 가증스러운 일로,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룬궁은 심성 수련으로서 파룬궁 수련생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생각이 없고 사람들에게 수련하라고 했기에 공산당에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변 박해 소식

훈춘시정법위원회, 610은 파룬궁수련생 여러명을 영안진 세뇌반에 가두어 박해하다

2021년 5월부터 6월 25일까지 훈춘시 정법위원회, 610, 국가보안과 각 파출소 경찰, 사회구역은 연합하여 검사증, 소환증을 챙기고 훈춘시 향촌 파룬궁수련생 가택에 침입해 소란했다.

검사증은 집수색을 위한 것인데 물품을 수색해내지 못하게되면 소환증으로 사람을 체포한다. 610 두목 리보(李波)는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소환할 것을 직언했으나 그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환증은 24시간 법률 효력이 있기에 24간내에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

이미 여러명이 영안진 세뇌반에 감금돼 박해받았다.

도문 장수친(张叔芹), 왕후이(王慧) 등은 도문세뇌반으로부터 연길로 전이돼 박해받다

금년 5월 도문시 610은 오공촌 생태원에 세뇌반을 꾸려 불법으로 40명 좌우의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했다.

소식에 따르면 일전 장수친, 왕후이 등 3명 파룬궁제자를 도문세뇌반으로부터 연길로 전이해 진일보로 박해를 실시한다. 기타사람들은 이미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화룡진 파룬궁수련생 리제(李杰)와 장량잉(张良英)은 진상 자료를 주어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납치됐다

누가 나의 조국을 망가뜨렸는가 ?

북경화가, 파룬궁수련생 쉬나(许那)는 북경 여자감옥에서 11 가지 고문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놀래우는 그 한 단락의 역사진상을 기록했다. 한 중국예술가로서 또한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는 수련인으로서 그는 자기민족 애국심으로 중공의 통치하에서 중국의 현실에 대한 근심을 심각히 표달했다.

내가 나의 조국을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곧 갈수록 도대체 누가 그를 망가뜨렸고, 누가 그를 점령했는지를 더욱 똑똑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의 조국은 70 세가 아니라 5 천 여세가 된다. 그는 대당(大唐)의 국, 대송(大宋), 대명(大明), 대청(大清)의 국이다.

나의 조국은 이 토지위의 산천하류(山川河流) 및 수천년의 유석도(儒释道)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 그러나 100 년전 유럽의 상공에서 떠돌던 하나의 '유령'이 중화대지를 혼란시켰고, 민중더러 이익만 탐내게 하고, 말로는 국가의 이득, 가정의 이득, 개인의 이득이라 하면서 온나라를 서로 이득의 싸움에 빠져 인의이지신(仁义理智信) 다섯가지 도리를 배신하게 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도전하여 산하를 망가뜨렸다. 현재는 녹수청산마저 금산, 은산을 짜내겠다고 한다.

나의 조국의 인민은 어떤이는 한평생 살아왔어도 이 국가에서 발생한 일을 알 수 없으며, 역사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왜곡됐다. 예를들면, 당시 독일인도 강대한 국가선전기계의 선동하에 줄곧 독일전쟁이 실패한 최후시각까지 모두

그들의 조국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정의롭다고 여겼으며, 연합군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것의 반인류적인 사악한 본질은 확실히 한눈으로 똑똑히 보아낼 수 없었다. 당시 나치정권도 독일인을 위해 한쪽 또 한쪽의 제국의 꿈을 담은 지도를 그리지 않았던가? 독일

지식분자들은 자아실천의 기회를 얻어 명예감을 획득했다. 나치는 일반민중들에게 원하는 물질과 이득을 주어 그들에게 획득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개인 처지에서 출발해 단지 눈앞의 이익만 얻으려는 사람은 오직 만족만 시켜주면 그들에대한 사상공제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음을 나치는 발견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중국사람에 대해 더욱이 중요하다. 그런 소위 애국 민주주의를 내걸고 열정이 들끓었던 독일인은 나치의 줄개가 되어 결국 그들의 조국에 먹칠을 했고, 그런 나치의 독재정권을 반대했던 의견자들은 진정한 애국을 실천했다. ◇글 / 쉬나



许那 쉬나

있는 진실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 뿐이었다. 이번에 쉬나와 함께 기소된 10 명 중에는 여러 차례 박해 받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은 90 대 후의 젊은이인데 다수는 지명도가 아주 높은 유명 대학을 졸업한 연구생, 대학생, 또는 화가, 예술가 등으로서 모두 국가의 기둥감이다.

쉬나의 변호사 량샤오전(梁小军)은 그의 트위터에 “쉬나는 한명의 화가로서 자유편집가이며 그의 지식, 그 자신의 비참한 경험과 험난한 운명은 그에게 일종 내심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 나오는 지혜, 양지와 용기를 지니게 했다.” “참혹한 환경속에서 그는 명리를 담당하게 보아 그가 마땅히 받아야하는 명예와 영향은 민간사회에서 낮게 평가되었지만 관방은 그녀를 경시할 수 없었다. 매번 그녀와의 회견은 모두 나에게 일종 정중히 듣고 학습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썼다.

편집자 : 2021 년 4 월 , 북경화가 쉬나 등 11 명이 불법으로 기소됐다. 원인은 단지 그들이 몇장의 중공병독 전염병시기 북경거리에서 흔히 볼 수

한가족 여덟명이 삼퇴한 이야기

[명후이왕] 어느 날 나는 진상을 알리러 나갔다가 전에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동료를 만났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둘 다 폐암에 걸려서 입원했고, 병원에서는 치료 할 방법이 없다고 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울며 하소연했다. 그녀는 살고 싶지도 않다고 슬프게 울었다. 그녀의 남편은 전에 학교의 당지부 서기였고, 그녀의 아들도 그 학교의 간부였다.

나는 그녀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전에 말기 간암을 앓았고, 파룬궁 수련 후 빠르게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100% 들을게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남편과 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입했던 사당(邪黨)과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게 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우게 하도록 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호신부 두 개를 주면서 그들이 ‘삼퇴(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이 대법 진상 호신부를 몸에 지니게 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호신부를 하나 더 달라고 하자 나는 그녀에게 좋아지는 건 그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알려줬다.

한 달 후, 나는 육교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나를 껴안으며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까요? 남편과 아들, 둘 다 좋아졌어요!”라고 격동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대법 사부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고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알려주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내가 가진 호신부 세 개 중 하나를 손녀의 가방에 넣었어요. 며칠 후, 부 세 개 중 하나를 손녀의 가방에 넣었어요. 며칠 후, 손녀의 학교에서 봄 소풍을 갔는데 글썽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학생 몇 명이 죽었고, 우리 손녀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원유인지 알고싶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가 우리 며느리에게 ‘원래 교통사고를 당한 손녀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손녀 가방에 있는 그 작은 사각형이 손녀를 구했어요.’라고 말했어요. 나는 즉시 며느리에게 내가 손녀 가방에 호신부를 넣었고, 그 호신부가 손녀를 구했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6년 후, 나는 진상을 알리러 나가는데 사부님께서 깨우침을 받고 바로 지난날 그 동료의 집으로 방문했다. 이번에 그녀는 호신부 여덟 개를 달라고 했다. 전에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삼퇴’하게 했고, 그날은 그 집안의 나머지 여섯 명이 모두 ‘삼퇴’했다.

그날 나는 또 학교의 다른 교원 A를 만났다. 교원 A는 나에게 “내 남편에게는 왜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사망했어요.”라고 말했다. 교원 A의 남편은 시 교육위원회 교육 처장이었다. 나는 “내가 당시 당신네 집에 갔을 때 당신들에게 진상을 말해 주려고 했어요. 당신들은 날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내쫓았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교원 A의 남편은 내게 “당신은 본보기가 되는 교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교원 A는 “그녀(위에서 말한 가족 8인이 삼퇴한 교원) 집의 부자 둘은 탈퇴했어요?”라고 물

었다. 나는 “그들 부자는 아직 살아 있지 않나요?”라고 묻자 교원 A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왜 살 수 있었는지, 왜 그런지 당신은 알 거예요!”라고 말하자 교원 A는 “그럼내가 가입한 당·단·대를 모두 탈퇴시켜줘요.”라면서 호신부도 달라고 했다. 후에 내가 다시 교원 A를 만났을 때 그녀는 호신부 하나를 달라고 했다. 그녀가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들도 ‘삼퇴’를 했다. 그녀는 전에 당뇨로 고생하고 정신 상태도 나빴으나 이제는 몸이 좋아져 퇴직해서 매일 놀러 갈 수 있게 됐다.

그 학교 많은 교원은 이 교사들이 복을 받은 사례를 모두 알고 있어 지금은 내가 그 학교 교사들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빨리 삼퇴 하시죠!”라고 하기만 하면 교사들은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학교의 많은 교사가 모두 ‘삼퇴’를 했다.

파룬따파는 신기하고 수승(殊勝)하며 법력은 홍미(洪微) 공간에 널리 퍼져 있다. 본 문장에서 말한 사례는 대법 위력이 세속에서 표현된 작은 일부일 뿐이다. 대법은 인류에게 세간의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또한 대법의 신기함과 수승함은 바로 사람을 반본귀진(返本歸真)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글 / 중국 대법제자

